

사람명사 복수표현의 영한번역전략에 대한 비판적 소고

조 의 연
(동국대_서울)

1. 들어가기

최근 복수표현 영한번역에 관한 연구들(조숙희 2007, 곽은주·진실로 2011) 가운데 곽은주·진실로(2011)는 영어 원천텍스트 복수명사의 번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번역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번역전략 1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인 경우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고,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곽은주·진실로 2011: 18).

이와 같은 복수명사 번역전략은 한국어에서 복수표지가 없는 이른바 무표형 명사는 의미적으로 중의적이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 입장 하에서 한

국어의 복수표지 ‘-들’이 없는 무표형 명사는 단일 개체를 지시하는 단수해석과 복수의 구성원을 가진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복수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¹⁾ 이는 한국어에서 사람명사의 복수해석은 무표형도 가능하며 복수표지 ‘-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명사의 복수해석에 관한 무표형과 ‘-들’형은 서로 자유변이의 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설에 기초하여 곽은주·진실로는 사람명사의 수(number)에 대한 영한번역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라는 번역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들의 번역연구가 가정하는 한국어 사람명사의 수에 관한 가설과 이에 기초하여 제시된 번역전략의 타당성을 실제 용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들의 위와 같은 번역전략은 목표어, 즉 한국어의 사람명사 수 표현에 대한 이론적 입장에 기초하여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가설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곧 해당 번역전략의 적절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Chesterman(1997: 1.4절)이 제안하듯이, 번역학이 경험과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번역전략을 경험적 증거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2절은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수에 관한 선행연구(강범모 2007, 노은주 2008, 조숙희·조의연 2011)에 기초하여 한국어 사람명사 무표형의 단수(개체) 해석과(집단개체의) 복수해석은 어휘적 중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것이다. 아울러, 곽은주·진실로가 가정하는 것과 달리, 사람명사 복수형태소 ‘-들’이 합개체의 복수 해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개체의 복수 해석도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복수형태소 ‘-들’은 복수 해석만을 허용하며 그것이 집단이나 아니면 합이나 하는 해석은 맥락 의존적임을 보일 것이다. 3절에서는 영한번역에서 사람명사를 지시하는 수에 대한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은 번역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끝으로 번역전략 일반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영한번역 사람명사의 수에 관한 번역전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수에 관한 언어학적 가설이 아니라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역문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1) 곽은주·진실로(2011:25)는 “한국어에서 명사의 단수표현(무표형 명사)이 단수개체와 복수개체 양쪽 모두를 지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복수해석은 합개체 해석(sum-reading)이 아닌 집단 해석(group-reading)을 말한다.

2. 사람명사 복수의미에 대한 비판

앞에서 언급한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 1’은 한국어에서 사람을 지시하는 무표형 명사는 의미적으로 단수와 복수의 구성원을 가진 집단개체를 지시할 수 있는 중의적 어휘 표현이라는 것이다.²⁾ 예를 들어, 무표형 명사 ‘학생’이 ‘순수원자개체’를 지시하는 단수의 의미와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복수의 의미를 가진 중의적 표현으로 본다.³⁾ 무표형 명사 ‘학생’이 ‘집단개체’ 복수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 (1) 학생이 모였다.
- (2) 그들이 축구를 하였다.
- (3) #학생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하였다.

위의 예문 (1)에서 ‘학생’은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복수로 해석되는데 이는 집단 술어 ‘모이다’와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에서 복수 대명사 ‘그들’이 (1)의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학생’의 대응어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1)에서 ‘학생’이 집단개체의 복수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분의 지시기능을

- 2)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수에 관한 연구는 중의적 가설에서 단의적 가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백미현(2002), Kwak(2003) 등은 무표형 명사는 단수 그리고 복수해석을 허용한다는 중의적 가설에 속한다. 한편 노은주(2008)는 무표형 명사는 어휘적으로 단수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가 하면 강범모(2007)는 무표형 명사의 단수 해석을 추론에 의한 대화 함축으로 보고 있다. 조숙희·조의연(2011)은 무표형 명사의 단,복수 해석은 어휘적으로 미명시화되어 있으며 맥락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곽의 복수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의적 가설에 대한 반론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노은주(2008)와 조숙희·조의연(2011)을 참조하기 바람.
- 3) 곽은주·진실로(2011: 17)는 “단수표현 ‘학생’은 순수원자개체와 복수의 구성원을 가지는 집단개체를 지시할 수 있어서 의미의 중의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무표형 표현 ‘학생’의 단수 지시의미는 순수원자개체를 표시하는 인덱스 ‘a(tom)’의 [학생a] 그리고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의미는 집단개체를 표시하는 인덱스 ‘g(roup)’를 붙여 [학생g]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형식의미론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의미형식으로 표시된다: ↑는 집단구성함수를 나타내며 집단을 지시한다.

[[학생a]] = [[student]] = {a, b, c}

[[학생g]] = [[studentsg]] = {a, b, c, ↑ (a+b), ↑ (b+c), ↑ (a+c), ↑ (a+b+c)}

하는 대응어 ‘각각’이 ‘학생’을 지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 접합된 복수표지 ‘-들’은 단수 지시의미의 ‘학생’에 접합된 것으로 ‘학생들’의 지시의미는 집단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원자개체들 간의 합으로 구성된 합개체로 해석된다. 복수표지 명사 ‘학생들’의 지시의미 [학생들]은 합개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복수표지 명사는 집단개체를 지시의미로 갖는 무표형 명사와 의미적으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 무표형 명사와 복수표지 명사에 대한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복수표지 명사 ‘학생들’은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잘못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드러났다.⁴⁾ 강범모(2007)가 주장하듯이, 문장 단위의 발화에서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이 집단개체이냐의 여부는 명사구의 지시의미 뿐만이 아니라, 집단성을 의미하는 술어와의 호응관계에서 드러난다. 아래의 예는 복수표지 명사 ‘사람들’이 술어 ‘모이다’와 호응하여 이른바 집단개체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 (4) 할머니 환갑날이었다. 안마당에다 상을 차려놓고 온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었다.
할아버지는 몇 해 전 세상을 뜨셨고 출가한 고모가 시집살이 안 좋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⁵⁾

한국어에서는 복수표지 명사가 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서만 집단개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 맥락 역시 복수표지 명사가 집단개체로 해석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또 다른 예는 복수표지 명사 ‘학생들’이 ‘일제히’라는 부사와 호응을 하며 집단개체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강범모(2007)는 무표형 명사가 복수를 의미할 때 지시대상은 집단을 그리고 복수표지 ‘-들’명사는 개체합을 지시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펴고 있다. 그의 주장은 ‘배분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들의 경우, 무표형 명사표현의 경우에도 ‘많은’ 등의 수량표현이 함께 발생하는 용례들이 사용되고 있다. 무표형 명사의 경우 집단해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예들은 이러한 수량사 때문이라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복수표지 명사든 무표형 명사든 수량표현이 함께 발생하지 않는 예시들을 통해서 곽은주·진실로의 입장에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 5) 이 이후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예들은 모두 세종말뭉치에서 추출된 실제 용례이다.

(5) 어느 봄날이다. 한 지방도시의 남자고등학교 교실에서 막 3교시 수업이 끝났다.
 차렷!
 경례!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일제히 허리를 뻗뻗이 세우고 절도있게 경례를 한다.

경례를 하는 행위는 개체들 각각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일제히 ‘차렷’ ‘경례’의 구령에 맞추어 개체들이 일사분란하게 함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생들 개개인은 원자개체로서 집단개체를 형성하여 복수의 구성원이 함께 집단적으로 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5)의 맥락에서 ‘학생들’은 집단개체로 해석된다. (4)와 (5)의 반증 사례들은 적절한 맥락이 주어지면 한국어 복수표지 ‘-들’은 합개체 또는 집단개체로서의 지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⁶⁾ 이는 복수형태소 ‘-들’이 접합된 사람복수명사가 합개체로 해석되느냐 집단개체로 해석되느냐는 문제는 형태소 고유의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맥락의존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어쨌든 이는 곽은주·진실로의 한국어 복수표지 ‘-들’의 의미기능에 대한 형식의미론 가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어의 무표형 사람명사 원자개체와 집단개체를 지시한다고 하는 곽은주·진실로의 입장과 달리, 무표형 사람명사가 합개체의 복수 대상을 지시하기도 하는 예를 보기로 하자.

(6) 따라서, 공립대학의 경우에도 학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주정부의 지원규모가 달라지게 되므로, 공립대학도 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면 대학의 운영이 크게 어려워지게 된다. 결국, 사립과 공립을 막론하고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학생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6) 아래의 예는 복수표지 ‘-들’을 가진 ‘학생들’이 합개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인용된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개별 개체들의 집합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이번 일로 상민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해 유명해졌는데도 잘난 체 안해 좋다”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위의 말뭉치 자료에서 ‘학생’은 복수로 해석된다. 유치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비록 문맥적으로 비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복수의 합개체로 구성될 수 있는 대상들이다. 대학들이 학생들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 즉 개체들의 모집을 통해 이루어지지 어떤 학생집단 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복수의 해석은 합개체의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아래의 예시에서도 부정어의 범위에 대상이 되는 사람명사 ‘사람’은 오솔길을 찾지 않은 사람 원자개체 또는 개개인들의 합으로 구성될 수 있는 합개체의 해석을 불러일으키지 집단개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7) 버스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오솔길을 따라 바닷가로 내려갔다. 한동안 사람이 찾지 않았는지 오솔길은 잠플 때문에 겨우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한국어의 사람명사 무표형은 복수로도 해석되는데 그 복수 해석 역시 집단개체뿐만 아니라 합개체의 해석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곽은주·진실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복수해석의 내용이 집단개체인가 아니면 합개체인가 하는 것은 맥락 의존적이지 어휘 형태소적인 속성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제시한 사람명사의 수에 대한 ‘번역전략 1’의 토대가 되는 한국어 명사의 복수표지 ‘-들’의 의미특성과 무표형 명사의 복수의미에 대한 가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사람명사 복수표현 번역전략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절은 이를 다룰 것이다.

3. 사람명사 복수표현 영한 번역전략의 검증

사람명사에 대한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번역전략 1’의 전반부에서 영어 원천텍스트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 복수표지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것은 영어 원천텍스트의 사람명사가 복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번역전략 1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인 경우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고,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⁷⁾

위에 언급된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인 경우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것은 지시명사가 복수의 대상인 사람인 경우, 복수표지 ‘-들’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무표형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말한다. 그 이유는 곽은주·진실로의 경우, 한국어의 무표형 사람명사는 복수의 구성원을 가진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외연적 어휘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표형 명사와 복수표지 ‘-들’의 사람명사가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는 한에 있어서 자유변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곽은주·진실로(2011: 18)는 이러한 입장을 내포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사람명사에 대해서는 단수표현(무표형 명사)과 복수표현(복수표지 ‘-들’명사)이 둘 다 무표적(unmarked)인 형태이다.....이를 번역에 적용하면,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사람명사는 단수표현과 복수표현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자연스럽다(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의 것임).⁸⁾

이러한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이 적절한 번역을 발생시키는지를 검증하여 보자. 먼저 이들의 연구에서 인용된 예시를 통해서 이를 보기로 하자. 아

- 7) 곽은주·진실로의 연구(2011: 2.4절)에서 그들은 무표형 명사가 어휘적으로 집단개체의 복수해석을 그리고 복수표지 ‘-들’의 사람명사는 합개체를 지시하는 복수해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가정하듯이, 한국어에서 무표형과 복수표지 ‘-들’형의 복수 지시의미가 이렇게 배타적인 관계로 한국어에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면, 곽은주·진실로의 사람명사 수에 대한 영한번역 전략은 이러한 지시의미의 차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복수해석에 대한 이러한 긴 논의에도 불구하고 무표형 집단개체 복수의미와 복수표지 ‘-들’형의 합개체 복수의미를 목표텍스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번역전략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8) 이러한 곽은주·진실로의 입장은 복수표지 ‘-들’명사구는 “합개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그리고 무표형 명사구는 복수의 해석 시 “복수의 구성원을 가지는 집단개체를 모두 지시하”는 것으로 언급한 자신들(2011:16-17)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래의 예시에서 원천텍스트의 ‘the boys’는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사람명사이다. 따라서 그들의 번역전략에 따르면 단수표현 무표형 또는 복수표현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그 결과는 모두 자연스러워야 한다.

<예시 1>

ST: The boys and I fanned out, looking for insect muchies.

TT1: 아이들과 나는 흩어져서 먹이가 될 만한 벌레를 찾았다. (복수표지 ‘-들’형)

TT2: 아이와 나는 흩어져서 먹이가 될 만한 벌레를 찾았다. (무표형)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바와 달리, 무표형 명사구 ‘아이’는 단수로 해석되어 원천텍스트의 복수 한정명사구 ‘the boys’의 복수해석이 목표텍스트에서 단수로 해석되는 의미의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다.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자연스럽게 무표적인 번역”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예측과 달리, 한국어에서 지시대상이 복수인 개체를 지시할 때, 무표형과 복수표지 ‘-들’이 자유변이의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어 원천텍스트에서 지시대상이 복수의 사람명사인 경우에 해당되는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은 오역을 낳을 수 있다.

한국어 텍스트에서도 무표형 명사구 ‘아이’가 수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단수와 복수개체 둘 다 가능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 (8)에서 ‘아이’는 단수개체와 복수개체의 양 해석이 가능하다.

(8) 우는 아이도 있었지.

그러나 한정적 해석이 강한 아래의 예들은 무표형 명사구 ‘아이’가 복수개체로 해석될 여지는 없음을 보여준다.

(9) 언젠가 아이와 함께 화원 앞을 지날 때였다.

(10) 하루가 지났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 한정성을 표시하는 지시 관형사 ‘그’와 결합이 되는 경우에 무표형 명

사구는 단수해석만 허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9) 아래의 예시에서 ‘그 아이’는 단수해석만을 허용하고 있다.

(11) 그 아이 곁에는 과자를 우적거리면서 풍선을 든 계집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은 소형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고 했다.

목표언어에서 무표형 사람명사구가 이렇게 단수개체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실증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표형 명사구가 복수개체를 지시할 수 있다는 직관적 가능성만으로 영어 원천텍스트에서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사람명사는 (한국어 목표 텍스트에서) 단수표현과 복수표현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자연스럽다”는10) 번역전략은 번역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

실제 번역텍스트의 사례들을 통해 영어텍스트의 사람명사 복수표현이 한국어 목표텍스트에서 무표형으로 번역되면 번역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영어텍스트에서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한정적 사람명사는 복수표지 ‘-들’을 수반한 복수 표현으로 번역되어야만 번역오류를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의 번역 예시는 영국작가 Jane Austen의 *Sense and Sensibility*의 1권 1장에서 발췌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번역본 T1은 최후좌와 T2는 윤지관의 것이다. 그리고 T3는 무표형 명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예시 2>

ST: In the society of his nephew and niece, and their children, the old Gentleman's days were comfortably spent.

T1: 조카 부부와 그 아이들이 같이 살게 되면서 이 노신사는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보냈다.

T2: 조카와 질부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9) 이러한 자료는 무표형 명사가 단,복수의 중의적 해석을 가진다는 가설에 대한 반증으로 사용되어 왔다(노은주 2008, 조숙희·조의연 2011). 조숙희·조의연(2011)은 ‘그’와 결합된 무표형 명사가 왜 단수해석만을 갖는가에 대한 화용적 설명을 하고 있다.
10) 인용구 안의 괄호 안의 정보는 필자가 첨가한 것임.

T3: 조카와 질부 그리고 그들의 아이와 함께 하는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예시 3>

ST: ... and the cheerfulness of the children added a relish to his existence.

T1: 그리고 아이들의 구김살 없는 밝은 모습은 그의 삶에 또 하나의 낙이 있었다.

T2: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은 노신사를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T3: 생기가 넘치는 아이는 노신사를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T1, T2의 기 출판된 번역에서 무표형 사람명사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관찰된다. 그리고 원천텍스트의 사람명사 복수표현을 T3과 같이 목표텍스트에서 무표형으로 번역하였을 경우, 단수해석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에 관한 번역 오류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영어 원천텍스트에서 복수 사람명사가 한정적 지시기능을 하는 경우, 영한번역에서 한국어 복수표지 ‘-들’ 명사로 번역되는 경향성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¹¹⁾ 위의 예시를 통해 볼 때 영어 원천텍스트의 사람명사 복수형과 관련된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 1’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²⁾

4.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영한번역에서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의 복수 번역을 위한

11) 예문 (3)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에서 사람명사 무표형은 비한정적 맥락에서 복수개체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영어 원천텍스트에서 사람명사가 비한정적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경우 복수표지 ‘-들’ 또는 무표형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또한 실증적 검증의 대상이다.

12) 한 심사자가 지적했듯이,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에 대한 반례들이 한국어 사람명사 ‘아이’에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예시가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곽은주·진실로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람명사의 예시는 ‘원주민’과 ‘아이’ 두 경우이었기 때문에 ‘아이’에 제한시켰으며 ‘원주민’의 번역사례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해당 번역전략은 번역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는 한국어 복수표지 '-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쓰일 정도로 무표형 사람명사와 자유변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였다. 즉, 한정적 지시 상황에서는 무표형은 반드시 단수만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전략이 필요하다면, 한정적 지시상황에서 복수표지 '-들'과 무표형은 각각 복수와 단수로 쓰이는 상보적 관계의 목표언어 규칙을 반영하는 번역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곽은주·진실로의 번역전략은, 2절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의 무표형 사람명사가 단수 및 복수해석이 가능하다는 타당하지 않은 중의적 가설에 기초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임을 보였다. 우리는 이러한 번역전략이 가지는 내부의 문제는 그 번역전략이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사람명사의 단수와 복수 표현에 대한 특정 언어학 이론 중심의 빛나간 가정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부적(local) 번역전략이란 기본적으로 번역가들이 최적의 번역에 이르기 위한 방식으로, 이것은 번역가들이 목표언어의 규범에 일치하는 방식에 이르는 전략을 말한다(Chesterman 1997: 88). 체스터만에 따르면, 국부적인 단위의 번역전략은 원천텍스트의 언어적 요소가 목표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문법적이든 화용론적이든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제시되는데, 이는 목표언어의 규범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하며, 번역전략은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¹³⁾ 따라서 언어단위의 국부적 번역전략은 해당 원천텍스트의 언어요소가 목표텍스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목표텍스트 언어의 규범에 일치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번역 도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김정우(2011: 114)의 경우, 한국어의 ‘일상언어’를 목표텍스트의 규범이라고 본다면, 그는 “TT(목표텍스트)가 일상언어와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을 번역 표현의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또한 번역전략의 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

13) 이러한 번역전략의 특성을 Chesterman(1997: 87)은 ‘problem-centered’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14) 비록 그것이 포괄적인 단위의 번역전략을 통칭하는 것이지만, 텍스트 상의 언어적 개별 번역전략은 사실상 이러한 목표텍스트 언어의 규범에 일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변환 규칙들을 말한다. 따라서 번역전략으로 제시되는 변환 규칙들은 원천텍스트의 해당 텍스트 언어요소가 목표텍스트의 규범에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5) 한국어 사람명사 수에 관한 번역전략 또한 방법론적으로 사람명사의 수에 관한 표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관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16) 영한번역에서 단·복수의 번역전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번역 실행과정에서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단지 언어적 차이가 문제가 되어 번역전략이 논의된다면, 수없이 많은 그러나 번역과정의 동기가 결여된 유용하지 못한 번역전략만이 제시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7)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3-31.
 박은주·진실로 (2011)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표현의 영한번역전략」, 『번역학연구』 12(1): 7-34.
 김도훈 (2011) 「영어 문장부호 일립시스(Ellipsis)와 한국어 문장부호 줄임표의 비교 및 일립시스의 번역 전략」, 『영어영문학21』 24(1): 113-134.

- 14) 언어 규범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이 ‘일상언어’ 또는 해당 언어 표현의 ‘기능’ 및 ‘용법’으로도 풀어서 표현되고 있다.
 15) 예를 들어 김도훈(2011)은 영어부호 일립시스(ellipsis)가 영한번역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번역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번역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진실로(2010) 역시 영어의 신체언어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16) 조숙희(2009)에 따르면, 영한 번역소설에 나타난 단·복수의 번역은 목표언어의 규범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목표언어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한 번역자들에게 단·복수 현상의 번역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번역전략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김정우 (2011)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 『번역학연구』 12(1): 75-122.
- 노은주 (2008) 「한국어의 무표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 『담화와 인지』 15:1 43-62.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연구」, 『담화와 인지』 9(2): 27-45.
- 윤지관 옮김 (2006) 『이성과 감성』, 서울: 민음사.
- 조숙희 (2007) 「영한번역에 나타난 영어 복수명사의 변환 연구: 유정성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5(2): 137-154.
- 조숙희 · 조의연 (2011)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단·복수 해석에 대한 화용적 분석」, 『언어연구』 28(22): 373-384.
- 진실로 (2010) 「영한 번역에서의 신체언어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1): 213-243.
- 최후좌 옮김 (2008) 『이성과 감성』, 서울: 해원출판사.
- Austen, Jane (2008) *Sense and sensi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Amsterdam and New York: John Benjamins.
- Kwak, Eun-Joo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phrases in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n* 35: 3-36.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a translation strategy for plural human noun
phrases in English-to-Korean translation**

Cho, Euiyon
(Dongguk University_Seoul)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a translation strategy for plural noun phrases in English-to-Korean translation which has been proposed by Kwak and Chin (2011). Since their translation strategy concerning human plural noun phrases is based on a linguistic hypothesis, in this paper, first, I argue that the linguistic hypothesis called ambiguity hypothesis concerning plural and singular interpretation of Korean human noun phrases without the Korean plural marker ‘-tul’ is invalid. It appears that Korean noun phrases with the plural marker or any plural quantifier allow only singular interpretation when they are given a definite interpretation. It will be better to assume that singular or plural interpretation of the so-called unmarked Korean noun phrase is contextually determined. Secondly, it is shown that the translation strategy, when applied for some authentic translation data, produces a mistranslation and therefore it must be discarded. It appears that English plural human nouns must be translated with Korean plural marker ‘-tul’ when they are contextually interpreted to be definite. What is suggested in this study is that any translation strategies, if needed, must be problem-centered to solve concerned translation problems occurring or to occur in translation process, not to be linguistically motivated to bridge any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source and target languages.

▶ Key Words: translation strategy, Korean plural marker, Korean human nouns, problem-centered, definite interpretation,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 전공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화용론, 인지의미론,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27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